

석사학위청구전

한국 채색화 현대적 해석: 본인
작품 중심으로

한국 채색화와 본인 작품의 유사성과 발전과정

2021년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회 화 과

동양화와진채화 전공

김 형 신

석사학위 청구전
지도교수 강관식

한국 채색화 현대적 해석: 본인 작품 중심으로

한국 채색화와 본인 작품의 유사성과 발전과정
Contemporary interpretation of Korean painting

2020년 12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회 화 과

동양화와진채화 전공

김 형 신

석사학위 청구전
지도교수 강관식

한국 채색화 현대적 해석: 본인
작품 중심으로

한국 채색화와 본인 작품의 유사성과 발전과정
Contemporary interpretation of Korean painting

위 논문을 미술학 석사학위 청구전으로
제출함

2020년 12월 일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회 화 과

동양화와진채화 전공

김 형 신

김형신의 미술학 석사학위청구전을 인준함

2020년 12월 일

심사위원 _____(인)
장

심사위원 _____(인)

심사위원 _____(인)

국 문 초 록

한국 채색화 현대적 해석: 본인 작품 중심으로

한 성 대 학 교 대 학 원
회 화 과
동 양 화 와 진 채 화 전 공
김 형 신

본인은 스치듯 지나간 시간조차 간직해 무의식중에 잠재되고, 꿈으로 연결되어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곤 한다. 그 안에서는 정상적인 범위 안에 있지 않은 광경들 또한 경계 없이 진행되고, 저장된 기록들은 자유롭게 그려진다. 대상을 통해 기억 안에서의 내면을 드러내거나 세계를 재구성, 재창조하고, 과정에 대한 고민을 표현한다. 이는 유형의 것을 무형의 정신으로 표출하는 것과 같다. 형상화된 이야기는 무수한 붓의 흔적을 거치고 나서야 표면 위로 완전히 올라간다. 방랑하던 영과 일 사이에서 더하기가 되어 이야기를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내면에 공존하는 다양한 감정들은 공간과 함께 그려지고, 대상이 가지고 있는 연결고리는 시간과 공간으로 압축되어 나타난다. 그 안에서의 이면은 각자 세계에서 생성되어 프레임 안에 들어온다.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개인의 기억과 경험이 며, 자아 세계의 성장 과정이 된다. 겹겹이 중첩되어 만들어진 각각의 이야기들은 ‘내가 점차 보아 가는 것’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대상에 어떠한 전신과 미를 인식시킬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는 작업의 시작과 같다. 동양 문화에 미적으로 영감 받아 대상의 상징과 자연 세계에 대해 구상을 하고, 환상과 현실에 변화를 거쳐 구성된 프레임 너머의 줄거리를 만들어 그 안에서 정체성과 의미를 찾는다. 작품에서 인체는 한 인간이 가지는 형태로 근 육 중심의 표현되는 것이 특징이다. 인간 내면의 정신적 세계를 반영하는 수단으로 형성되어 프레임 안에서 인간과 인간이 한 세계를 직면하고, 자연 친화적으로 비춰진다. 그려진 대상의 형상은 분명함과 경계의 불분명한 회화적 표현방식을 구사한다. 대상의 성격과 상황을 설정하고, 움직임을 그려내 색으로 전반적인 분위기를 나타낸다. 작품에 사용 되는 석채(천연안료)는 암석에 따라 안료의 색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색을 내기 위한 선택을 한다. 우선 입자의 크기에 따른 명도 차이로 색을 택한다. 안료에 따라 예외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안료 입자의 크기가 클수록 선명함과 강한 색을 내고, 크기가 작아질수록 밝고 연한 색을 띤다. 또 안료를 소성하여 구운 정도에 따라 색을 변화시키거나 수비(水飛) 후 불순물을 건조해 사용하는 방법을 택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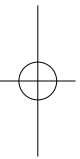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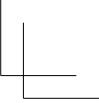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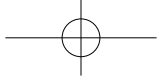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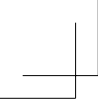
그려진 길을 따라 색을 입히는 과정은 항상 새롭게 다가온다. 매번 사용하는 아교의 양과 안료의 색이 달라지고 달리 표현되기 때문이다. 이는 어렵사리 재료를 사용하는 이유가 된다. 채색할 때의 스며듦은 오랜 시간 걸쳐 쌓아 올리는 과정에 속한다. 과정 자체가 흡착되는 것으로 반복적인 덧칠에 색을 만들어낸다. 입자 선택과 아교 결합, 몇 번에 중첩으로 한 영역의 색을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과정은 느낌의 미학에 가깝다. 전체적인 형태를 갖추되 그 안에서의 경계를 풀어주고, 드로잉 하듯 빠르게 스케치하지만, 색으로 오랜 시간 미를 인식시킨다. 대상이 담고 있는 히스토리를 어떤 색을 중심으로 표현할지 고민하고, 색과 색의 반복적인 겹침은 무게에 변화를 주기 위한 행위로 연결된다. 무수한 선을 그려 넣다가 크고 작은 터치를 주며 형태의 경계를 무너트리는 것은 시간과 색이 압축되어 화면에 드러난다.

관조하고 그리기를 반복한다. 단순히 대상을 재현하지 않고 보다 대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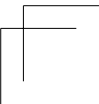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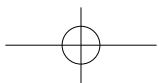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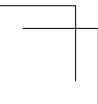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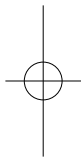
내면에 감정을 불어 넣어 작품으로 옮긴다. 관찰하고, 생각하며, 선택한 대상의 역사를 추측하고, 어느 순간에 담긴 느낌, 기억, 상상력과 마주한다. 이번 시리즈는 다양한 색으로 전체적인 분위기를 나타내고, 색과 대비되는 내면을 대입 시켜 새로운 이미지를 도출해내었다. 나아가 감각적이고 어두운 부정적인 순간을 프레임 너머의 이야기를 전환하는 과정 또한 표현되었다. 인체뿐만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대상을 표현하여 내면세계를 중심으로 접근하고, 동양화에서 보이는 여백에 대한 의미를 공간에 지녔다. 전체적인 구성에서 영역을 구분 짓는 것으로 이어지지만 경계의 불분명함과 여백에서 보는 이의 공간을 만들어 보고자 했다. 어떤 대상이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화면에 배치하여 만들어진 작품의 출발점을 시작으로 각자의 감정과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다양한 이야기로 존재했으면 한다. 우리는 각기 다른 환경에서 여러 경험을 하지만 감정을 시각적으로 형상함으로써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다고 본다. 저마다 가지고 있는 내면의 움직임이 투영되어 머무르는 시간으로 기록되길 바라다.

그림 목 차

[그림 1]	밤편지, 72.7×90.9cm, 종이에 석채	
[그림 2]	공존, 116.8×91.0cm (2), 화판에 마대천, 황토, 석채	
[그림 3]	방랑, 116.8×91.0cm, 종이에 석채	
[그림 4]	Closer, 116.8×91.0cm, 종이에 석채	
[그림 5]	홀로, 93.0×44.0cm, 나무에 석채	
[그림 6]	휘파람, 93.0×44.0cm, 나무에 석채	
[그림 7]	시간의 바깥, 93.0×44.0cm, 나무에 석채	
[그림 8]	Stay, 93.0×44.0cm, 나무에 석채	
[그림 9]	Sunrise, 93.0×44.0cm, 나무에 석채	
[그림 10]	나만, 봄, 93.0×44.0cm, 나무에 석채	
[그림 11]	그 끝엔, 93.0×44.0cm, 나무에 석채	
[그림 12]	잠잠, 93.0×44.0cm, 나무에 석채	
[그림 13]	Burn out, 93.0×44.0cm, 나무에 석채	
[그림 14]	시(時), 45.6×38.0cm (3), 종이에 백토, 석채	
[그림 15]	00:00, 72.7×116.8cm, 린넨에 백토, 석채	
[그림 16]	on-off-on, 72.7×116.8cm, 린넨에 백토, 석채	
[그림 17]	눈길, 72.7×116.8cm, 린넨에 백토, 석채	
[그림 18]	몽상가들, 89.4×145.5cm, 종이에 백토, 석채	



o o hour
o o
minute _____



00시00분

본인은 스치듯 지나간 시간조차 간직해 무의식중에 잠재되고, 꿈으로 연결되어 비현실적인 이야기를 만들어내곤한다. 그 안에서는 정상적인 범위 안에 있지 않은 광경들 또한 경계 없이 진행되고, 저장된 기록들은 자유롭게 그려진다. 대상을 통해 기억 안에서의 내면을 드러내거나 세계를 재구성, 재창조하고, 과정에 대한 고민을 표현한다. 이는 유형의 것을 무형의 정신으로 표출하는 것과 같다. 형상화된 이야기는 무수한 붓의 흔적을 거치고 나서야 표면위로 완전히 올라간다. 방랑하던 영과 일 사이에서 더하기가 되어 이야기를 만들어 내기 시작했다. 내면에 공존하는 다양한 감정들은 공간과 함께 그려지고, 대상이 가지고 있는 연결고리는 시간과 공간으로 압축되어 나타난다. 그안에서의 이면은 각자 세계에서 생성되어 프레임 안에 들어온다. 공간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개인의 기억과 경험이며, 자아 세계의 성장 과정이 된다. 겹겹이 중첩되어 만들어진 각각의 이야기들은 ‘내가 점차 보아 가는 것’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대상에 어떠한 전신과 미를 인식시킬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는 작업의 시작과 같다.

동양 문화에 미적으로 영감 받아 대상의 상징과 자연 세계에 대해 구상을 하고, 환상과 현실에 변화를 거쳐 구성된 프레임 너머의 줄거리를 만들어 그 안에서 정체성과 의미를 찾는다. 작품에서 인체는 한 인간이 가지는 형태로 근육 중심의 표현되는 것이 특징이다. 인간 내면의 정신적 세계를 반영하는 수단으로 형성되어 프레임 안에서 인간과 인간이 한 세계를 직면하고, 자연 친화적으로 비춰진다. 그려진 대상의 형상은 분명함과 경계의 불분명한 회화적 표현방식을 구사한다. 대상의 성격과 상황을 설정하고, 움직임을 그려내 색으로 전반적인 분위기를 나타낸다. 작품에 사용 되는 석채(천연안료)는 암색에 따라 안료의 색이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색을 내기 위한 선택을 한다. 우선 입자의 크기에 따른 명도 차이로 색을 택한다. 안료에 따라 예외인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안료 입자의 크기가 클수록 선명함과 강한 색을 내고, 크기가 작아질수록 밝고 연한 색을 띤다. 또 안료를 소성하여 구운 정도에 따라 색을 변화시키거나 수비(水飛) 후 불순물을 건조해 사용하는 방법을 택하기도 한다.

그려진 길을 따라 색을 입히는 과정은 항상 새롭게 다가온다. 매번 사용하는 아교의 양과 안료의 색이 달라지고 달리 표현되기 때문이다. 이는 어렵사리 재료를 사용하는 이유가 된다. 채색할 때의 스며듦은 오랜 시간 걸쳐 쌓아 올리는 과정에 속한다. 과정 자체가 흡착되는 것으로 반복적인 덧칠에 색을 만들어낸다. 입자 선택과 아교 결합, 몇번에 중첩으로 한 영역의 색을 표현할 것인가에 대한 과정은 그림의 미학에 가깝다. 전체적인 형태를 갖추되 그 안에서의 경계를 풀어주고, 드로잉 하듯 빠르게 스케치하지만, 색으로 오랜 시간 미를 인식시킨다. 대상이 담고 있는 히스토리를 어떤 색을 중심으로 표현할지 고민하고, 색과 색의 반복적인 겹침은 무게에 변화를 주기 위한 행위로 연결된다. 무수한 선을 그려 넣다가 크고 작은 터치를 주며 형태의 경계를 무너트리는 것은 시간과 색이 압축되어 화면에 드러난다.

관조하고 그리기를 반복한다.

단순히 대상을 재현하지 않고 보다 대상 내면에 감정을 불어 넣어 작품으로 옮긴다. 관찰하고, 생각하며, 선택한 대상의 역사를 추측하고, 어느 순간에 담긴 느낌, 기억, 상상력과 마주한다. 이번 시리즈는 다양한 색으로 전체적인 분위기를 나타내고, 색과 대비되는 내면을 대입 시켜 새로운 이미지를 도출해내었다. 나아가 감각적이고 어두운 부정적인 순간을 프레임 너머의 이야기를 전환하는 과정 또한 표현되었다. 인체 뿐만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대상을 표현하여 내면 세계를 중심으로 접근하고, 동양에서 보여지는 여백에 대한 의미를 공간에 지녔다. 전체적인 구성에서 영역을 구분 짓는 것으로 이어지지만 경계의 불분명함과 여백에서 보는 이의 공간을 만들어 보고자 했다. 어떤 대상이 호기심을 자극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화면에 배치하여 만들어진 작품의 출발점을 시작으로 각자의 감정과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다양한 이야기로 존재했으면 한다. 우리는 각기 다른 환경에서 여러 경험을 하지만 감정을 시각적으로 형상함으로써 공통적인 이야기가 있다고 본다. 저마다 가지고 있는 내면의 움직임이 투영되어 머무르는 시간으로 기록되길 바라다.



밤편지, 72.7×90.9cm, 종이에 석채, 2020



공존, 116.8×91.0cm (2), 화판에 마대천, 황토, 석채, 2020



화판에 마대천, 황토, 석채, 2020



방랑, 116.8×91.0cm, 종이에 석채, 2020



Closer, 116.8×91.0cm, 종이에 석채, 2020



홀로, 93.0×44.0cm, 나무에 석채, 2020



휘파람, 93.0×44.0cm, 나무에 석채, 2020



시간의 바깥, 93.0×44.0cm, 나무에 석채, 2020



Stay, 93.0×44.0cm, 나무에 석채, 2020



Sunrise, 93.0×44.0cm, 나무에 석채, 2020



나만, 봄, 93.0×44.0cm, 나무에 석채, 2020



그 끝엔, 93.0×44.0cm, 나무에 석채,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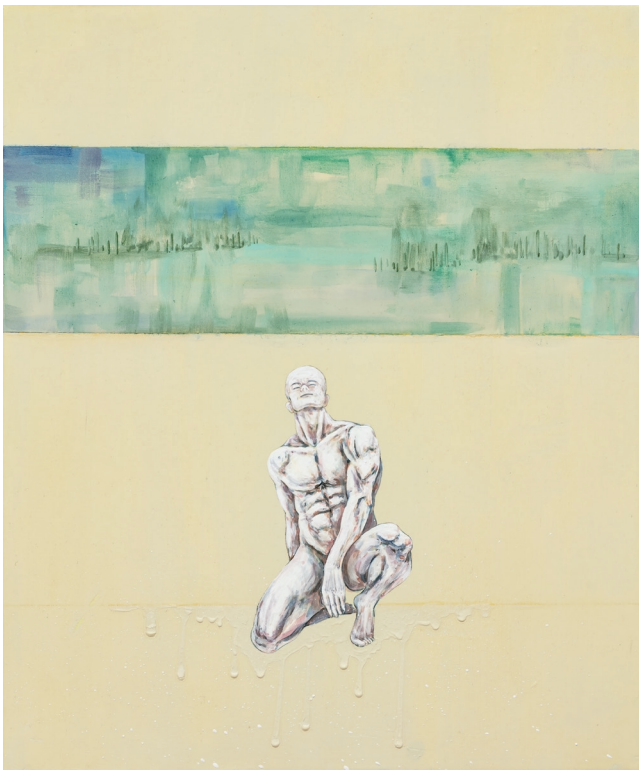


잠잠, 93.0×44.0cm, 나무에 석채, 2020



Burn out, 93.0×44.0cm, 나무에 석채,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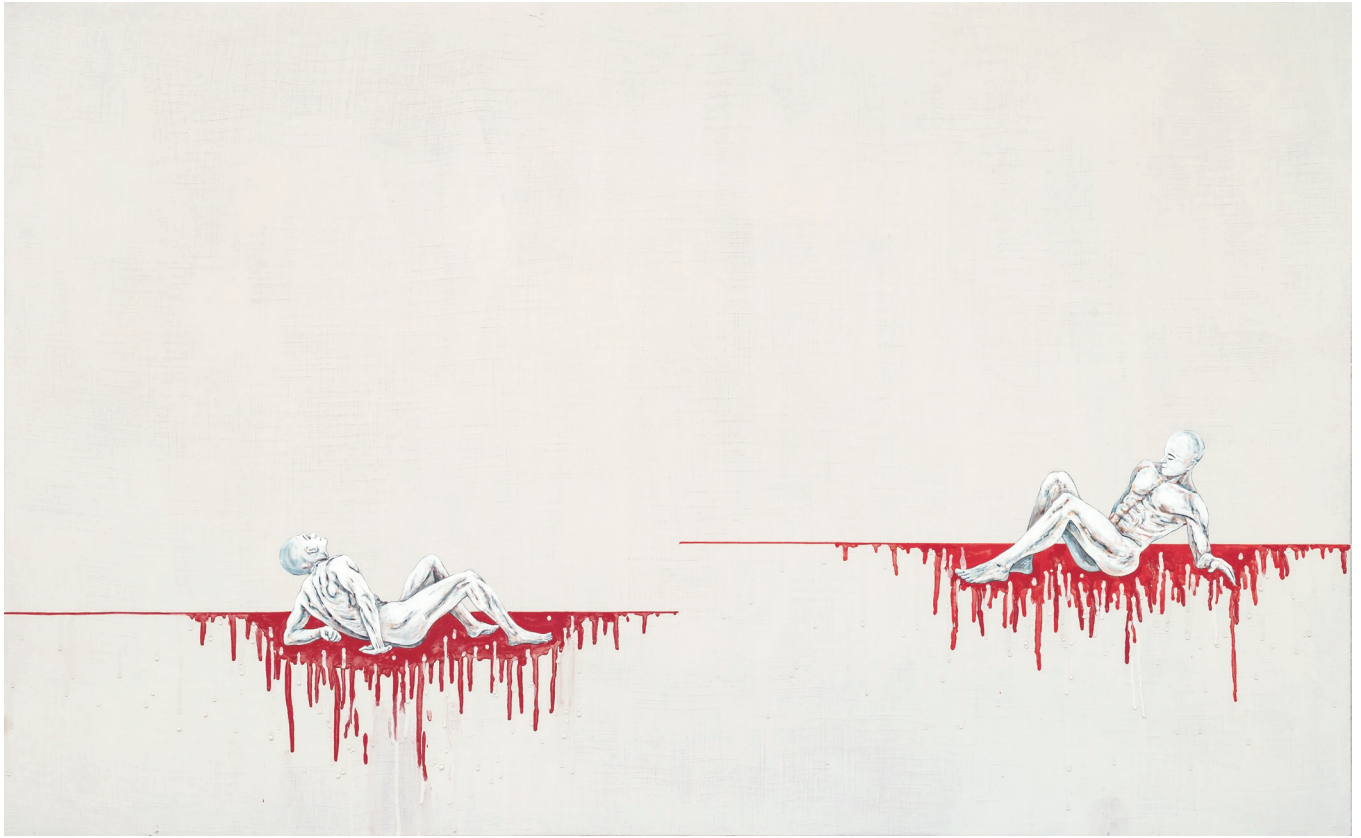




시(時), 45.6×38.0cm (3), 종이에 백토, 석채, 2020



00:00, 72.7×116.8cm, 린넨에 백토, 석채, 2020



on-off-on, 72.7×116.8cm, 린넨에 백토, 석채, 2020



눈길, 72.7×116.8cm, 린넨에 백토, 석채, 2020





몽상가들, 89.4×145.5cm, 종이에 백토, 석채, 2020

